**준 비 서 면**

사 건 2019드합2222

피 고 김 미 선

**내 용**

 원고는 남편김승곤과 사는 날 동안 전과도 여러 개 붙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예사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결혼상담소에서 만나서 재혼할 때 즈음,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서로..법정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30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보니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법정이라고는 처음 나와본지라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챙피해서 그냥 30만원을 내었는데.. 그것이 전과가 되는 것인줄 몰랐습니다.

다음, 경리일을 보겠다고 사무실에 나갓는데 인수인계를 하던 경리가 너무 상식 밖으로 굴며 난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뺨 한대를 때렸는데 ‘폭력’전과가 되었습니다(남편의 내연녀).

상대방 남편은 경찰서로 나왓는데, 김승곤은 전화를 꺼놓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김승곤이 ‘니는 아는 사람도 없냐며 ‘차명계좌’를 만들어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하도 여러날 쪼으길래, 교회에서 2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사업사기’라는 전과를 붙였습니다.

다음이 현재! ‘횡령’으로 몰린 이 번 사건입니다.

감옥에 넣어서 죽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딸이 부재중입니다. 계속 딸을 집에 들어오도록 찾고있는데. .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우지않을까 두렵습니다.

원고는 결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간부도 여러 번 했었고, 5개 부문 학교대표를 나갈 정도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원고의 외조부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며, 친가는 지리산 땅지주 셨던거 같습니다.

친정은 50년 그리스도인집안 입니다.

 원고의 기막힌 사연을 진단해 주시길바랍니다.

 2021. 9. 14

 김 미 선